

# 경력개발센터이야기

## 5. 센터 이용후기

4학년 1학기가 되면서부터 경력개발센터를 처음 방문하였다. 처음엔 취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지 못했다. 컨설턴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 보면서 내가 어떤 직업과 직무를 원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막연히 관참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은행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해 자극을 많이 받았고, 한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면서 자료도 모았다.

자소서 같은 경우도 컨설턴트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좋았다. 어디가 어떤 식으로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며 딱딱 말씀해 주셨다. 덕분에 내가 읽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자소서를 잘 쓰진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는 감을 잡을 느낌이다.

이번 학기동안 경력개발센터를 방문하면서 취업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아마 혼자 생각했더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인턴 자소서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서 무엇이든 직접 부딪히고 행동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은행 지점을 찾아가기도 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때의 준비과정 속에서 배운 점이 많기 때문에 뿌듯하다.

앞으로도 경력개발센터를 자주 이용하면서 취업을 위해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지만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